

# 7천년된 靈木 (영목)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



수익권을 포기하는 사천산 영목 작품

영목(靈木)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라는 나무로서 은행나무, 소철 등과 함께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원시 나무로 이 세상에 알려지기는 1941년 중국 사천성(四川省) 장강(長江) 유역에서 발견되면서였다.

국내에서도 충북 정선, 전라도 일부 지역에 목목을 식재하여 가로수로서 현재 지내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영목(靈木)은 약 7천년 전 중국 사천성(四川省) 민강(岷江)유역에서 자생했던 나무로 지각의 변동에 의하여 산소가 없는 강바닥 진흙에 묻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탄화 가 되어서 썩지 않고 원래의 나무 재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발견이 되었다.

중국의 사천성(四川省) 정부는 이를 분석해본 결과 7천년 전 자생했던 메타세쿼이아 라고 밝혔고 나무 원래의 형태 그대로 보존이 된 것으로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하여 영목(靈木) 또는 신목(神木)이라고 지칭하여 이를 보존하되 그 형태가 기이하고 기(氣)가 충만해 있음을 알고 이는 지구상에 오직 한곳 밖에 없는 재생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연 상태의 영목(靈木)을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영목예술학술연구원(靈木藝術學術硏究院)'을 구성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영목(靈木)의 예술성과 과학성, 문화성, 학술성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고궁박물관(古宮博物院)' '중국수집가협회(中國蒐集家協會)'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 '사천사회과학원(四川社會科學院)'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 세계에 영목(靈木)의 진귀한 가치를 알리고 있다.

영목(靈木)의 나무 재질은 아주 견고하고 흑갈색으로 우아하며 은은한 중앙향(中央香)은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영정난 기(氣)를 도운다 하여 중국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 속담에 '단금(黃金)이 있어도 영목(靈木) 있는 것 보다 못하다' 할 만큼 귀한 것으로 여겼다.

누구나 이를 소장(所藏)하고 있으면 집귀(集貴)를 쫓고 액운(厄運)을 물리친다고 믿고 있어 소장을 원하여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귀한 가치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

스님들은 영목(靈木)으로 염주(念珠)와 범인(法印)을 만들어 찬상 지니고 다니며 정기(精氣)를 맑게 한다고 하여 도단에서 정진을 할 때 부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믿어 국내에서도 몇몇 고승들께서 귀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동안 영목(靈木)은 중국정부로부터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 하였으며 실례로 세계적인 부호인 빌게이츠가 자신의 자택의 내부를 영목(靈木)으로 장식을 원하였으나 개인의 용도로 제한된 영목(靈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한 일이 있다고 사천성(四川省) '영목예술학술연구원(靈木藝術學術硏究院)'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목(靈木)으로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영목불사추진협회(靈木佛事推進協會)'에서는 중국 사천성(四川省) '영목예술학술연구원(靈木藝術學術硏究院)'와 협의 하여 불기(佛紀) 225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스님과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님께서 영목불사(靈木佛事)의 참된 뜻과 영목(靈木)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영목(靈木)으로 백팔염주(百八念珠)와 단주(檀珠)에 부처님의 신비함과 그 영정함을 한알 한알 담아서 드리고자 하기위해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시험에 합격할 기원하는 분, 무병장수를 원하거나 소원을 버는 불자님은 영혼이 담긴 신비한 영목염주(靈木念珠)로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호국불사(護國佛事)로 유명한 신 무병대사(無邊大師)님은 영목(靈木)의 불심(佛心)이 불사(佛事)로 이어져 영목불상(靈木佛像)이나 관음상(觀音像)이 국내에 세워지길 바라고 있으며 달마도(達摩圖)로 잘 알려진 경남 고성 달마선원(達摩禪院)의 청광선사(淸光禪師) 김용대(金容大)와 백에서도 영목(靈木)의 신비함과 영정난 신기(神氣)로 이루어진 영목백팔염주(靈木百八念珠)를 불자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다. 여러 사정상 비록 한정된 수량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드리지 못함을 '영목불사협회(靈木佛事協會)' 관계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와 협의를 해서 불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개인의 용상(佛像)을 선물하기로 특별제작 상담을 하고 있으며 액자 형 인골 부조(浮彫)나 기타 공예조각품, 불사를 위한 특별한



중국 사천성장강 영목 발굴 현장

영목(靈木)의 신비함과 영정난 신기(神氣)로 이루어진 영목백팔염주(靈木百八念珠)를 불자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다. 여러 사정상 비록 한정된 수량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드리지 못함을 '영목불사협회(靈木佛事協會)' 관계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와 협의를 해서 불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개인의 용상(佛像)을 선물하기로 특별제작 상담을 하고 있으며 액자 형 인골 부조(浮彫)나 기타 공예조각품, 불사를 위한 특별한



영목 염주, 조각용인 영목, 발굴된 영목

### 추천사

#### 청광선사 김용대 화백

7천년된 영목 신비한 기가 참만 합니다. 영목으로 불사를 하시거나 영목염주는 스님이나 불자님께 부처님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불자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영목으로 만든 액자형 부조



영목으로 제작된 용상

작품을 위해 상담 및 중국 현지 방문도 가능하다고 하며 이번 기회에 영목(靈木)의 진가와 그 예술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중국(中國) 사천성(四川省) '영목예술학술연구원(靈木藝術學術硏究院)'과 협의하여 대규모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영목불사추진협회 02-3445-8856)

# 靈木之尊



## 7천년된 靈木(영목)의 신비함을 한 알 한 알 부처님 염주에 담았습니다!

사업번창, 소원성취, 합격, 승진 기원, 무병장수 부처님 전에 영혼이 담긴 靈木염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지내고만 다녀도 액운을 물리칩니다!

靈木(영목)이란 神木(신목)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四川省 岷江 유역에서 발견된 약 7천년된 고목이 홍수, 지진 등 자연변화를 거쳐 진흙 속에 묻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모양이 기이하지만 나무재질은 아주 견고하고 흑갈색으로 우아하다. 靈木은 지구상에 한곳밖에 없는 매우 희소한 나무로 영원히 재생하지 못하므로 더욱 진귀함을 느끼는 것이다.

靈木의 은은한 향은 정신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우며 뇌를 도운다고 하여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靈木을 소유함으로써 富(부)를 얻고 무병장수 한다고 하며 생명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하여 중국 四川省 '영목예술학술연구원'에서는 '고궁박물관', '중국수집가협회', '중앙미술학원', '사천사회과학원' 등 20여명의 지명된 전문가를 구성하여 靈木의 과학성, 학술성, 문화성, 예술성을 전문 연구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靈木은 그 희소 가치로 인하여 약 2m 정도의 조각품을 현지에서도 수 억원에 호가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법인(法印)과 염주를 만들어 지니면서 정신을 맑고 정기를 맑게 한다고 하여 귀하게 여겼으며 황금보다 더 소중한다고 하여 부적(符籙)처럼 소장한다고 한다.

불기(佛紀) 2250년 석탄일(釋誕日)을 맞아 국내 최초로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佛子)님 몇 분께 현지에서 靈木으로 수(手) 제작한 백팔 염주와 단주를 바칩니다.

靈木 염주로 부처님 전에 소원을 빌어 만사행통하시고 무병장수,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靈木으로 불사를 하시거나 특별한 수 공예품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도 드리고 중국 현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靈木佛事推進協會(영목불사추진협회) 대표전화 02)3445-8856

백팔염주, 단주, 보관함, 실크주머니, 성분 분석표